

현대패션에 나타난 레트로스타일 연구

양 리 나

배재대학교 패션디자인학부 교수

A Study on Formative Feature Characteristic of Modern Retro-Fashion

Li-Na Yang

Prof., Dept. of fashion design, Paichae University

(2006. 5. 17. 접수; 6. 16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meaning of retro-fashion, to research the formative feature characteristic and aesthetic values. Retro-fashion is one of the expression of spatiotemporal-eclecticism, The formative of modern Retro-fashion are as follows:

First, Retro-fashion based on spatiotemporal-eclecticism have been come from 40s, 50s, 60s, 70s, 80s style of time, and the asia, africa, middle east, latin America in region.

Second, the design inspiration and technique is used more primitive crafts and decoration like handcrafted material, handmade ornaments as dyeing and embroidery of bohemian, jacquard pattern, oriental beads, applique, new hippie touch, patchwork, smocking, primitive button, woods, ethnic motives.

Third, modern Retro-fashion is reflection of human feelings as nostalgia from the past, it supplies the sense of fashion creativity and new ideas.

Key Words: Retro-fashion(레트로패션), Postmodernism(포스트모더니즘), Spatiotemporal-eclecticism (시공간적 절충주의)

I. 서론

현대인의 불안감과 정체성 상실 속에서 과거로의 회귀에 바탕을 두고 안정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레트로 경향이 패션계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포함한 건축 및 자동차 디자인 등의 산업디자인분야와 미술 분야 등 예술전

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양식이 극도로 첨단화, 현대화하는데 대한 불안감속에서 마음의 풍요와 옛 것의 향수를 가지고 지나간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면서 현대인들은 레트로를 동경하게 되었으며, 과거와 자연을 동경하는 이러한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과거의 서양복식과 민속복식을 응용 및 재

*Corresponding author ; Li-Na Yang

Tel. +82-42-520-5457, Fax. +82-42-520-5576

E-mail : yang@pcu.ac.kr

현하는 과거의 회귀를 추구하는 레트로 패션은 중요한 패션경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레트로 패션은 외적으로는 지나간 세계에 대한 향수로 과거의 의상을 재현한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세대 간 감성을 이어주고, 지역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욕구를 지니며 감성표현이 자유로운 현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의상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레트로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는 서양복식을 대상으로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버슬스타일과 1950년대 60년대 스타일의 등장에 관해 고찰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나타난 레트로 패션과 시공간적 절충주의에 근거하여 접목시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패션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레트로패션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 시공간적 절충주의와 접목시켜 레트로패션의 스타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패션경향의 예측 및 디자인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00년 이후 패션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논문 및 국내외 문헌, 인터넷 사이트(www.firstview.com, www.samsungdesign.net, www.ifp.co.kr)를 비롯하여 국내외 잡지와 패션정보지등의 자료분석을 주로 하였으며,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레트로 패션의 개념과 배경

레트로(Retro)는 레트로스펙티브(Retrospective)의 약어로 노스텔직(Nostalgic)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복잡한 사회구조 안에서 파괴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옛 것을 찾고,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며,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

하는 현상을 말한다. 레트로 현상은 과거양식을 ‘모방’하되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의 변화를 이루는 ‘패러디’과정을 통해 나타남으로 새로운 표현성을 갖는 현대의 유행스타일로 재창조되는 것으로, 레트로 개념은 이와 유사개념이나 전체 개념이 될 수 있는 ‘모방’, ‘패러디’와 유사개념 또는 부분개념인 ‘빈티지’(vintage), ‘패스티쉬’(pastiche), ‘브리콜라주’(Bricolage)등의 개념으로 더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레트로에서의 ‘모방’의 개념은 단순히 똑 같은 것을 따라 하는 복사의 개념과는 구별되며 새롭게 재구성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패러디’는 고유성보다는 목적에, 원작의 독창성보다는 재창조에 주의하며 전통에 대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으로 그 의미를 두는 것이다¹⁾.

한편 레트로가 오래되어도 가치가 있거나 과거양식의 느낌이나 감각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해내는 반면 ‘빈티지’(vintage)는 주로 예전의 소재나 의복 아이템을 큰 변화 없이 나타내는 작업이다²⁾.

‘패스티쉬’(pastiche)는 스타일이나 요소를 빌려오는 작업으로 때때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캐리커처(caricature)와 가깝다³⁾. ‘브리콜라주’(Bricolage)는 과거의 양식의 재료나 아이템을 재조합하는 것이며, 레트로는 과거양식의 각 아이템들이 형태, 특성, 스타일에서부터 그 시대의 감각까지 응용해오는 특성이 있다⁴⁾.

선행연구에서는 레트로를 모던적 표현이외에 창조성과 소비자의 정서적 공감대를 연출하는 감성적 문화매개물⁵⁾로 정의하고 있거나, 과거의 친숙한 요소의 인용으로 충격을 증감하고 아이러니를 강화시키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거나⁶⁾, 과거의 역사적 요소들을 해체, 과장, 확대, 축소등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며 복식분야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자율성에 의존하는 시대미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았다⁷⁾. 또한 1980년대에는 단순히 옛 것을 그리워하고 회고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과거의 양식을 절충해서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포스트모던, 역사주의의 주류 속에서 과거의 노스텔지어를 현대풍으로 리바이벌 시키는 감각⁸⁾으로 설명한다.

결국 패션에 있어 레트로의 의미는 ‘과거의 요소를 현재의 시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감성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복식의 역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복식이 나타날 때 과거의 복식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유행이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데 힘을 다하면 누군가가 옛 것을 다시 내놓아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여 역사적 회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⁹⁾. 한 시대의 특징적 스타일은 바로 이전시대의 스타일에 당.시대의 시대적 특성이 부가되어 형성된다.

레트로 현상은 모더니즘이 전통과 미래를 파괴해버릴 것이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활시키려는 요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심리, 주위로부터 보호되고자 하는 심리 외에 미래에 대한 불안, 새것에 대한 낯설음이 자의식을 움츠리게 만들어 옛 것에 대한 향수를 일으키고 과거의 것을 취함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는 것으로 나타난다.

레트로패션은 1971년 이브생로랑(Yves Saint-Laurent)이 40년대 풍의 패션을 재현시킴으로써 패션의 한 장르로 등장하게 되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 디자인분야에서 프랑스 저널리스트들이 이름 붙인 ‘레트로’ 현상은 20세기 후반에 예술, 문학, 건축,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레트로 형성에 영향을 미친 포스트모더니즘은 절충, 복합성과 대립성, 은유와 상징, 장식성, 융합, 해체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절충의 의미는 역사적인 요소와 민속적인 요소의 도입으로 역사나 지역의 고유문화의 회고로 해체와 융합의 형태의 복고성을 나타 낸다¹⁰⁾.

패션에서의 복고적 경향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기법의 하나인 절충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역사적인 요소, 민속적인 요소의 해체와 융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공간적 절충주의의 복고성의 개념은 포스트모던 복식의 조형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적 특성이 된다.

2. 1970년 이후 레트로 패션의 흐름



<그림1> 바지통이 넓어진 팬츠슈트(1972)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397)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복고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스타일이 빠르게 순환되고 있으므로 과거의 양식이 재현되는 레트로 경향도 더욱 빈번한 출현을 보였다¹¹⁾. 현대패션에서 표현되는 복고는 시대적 양식의 융합으로 한 스타일안에 여러 시대가

동시에 재현되며, 현대적인 방향성을 띠고 등장한다. 다만 복고적 요소는 단순히 역사적 내용의 차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차용을 특징으로 하며 현대 패션의 역사주의 의상은 고대복식으로부터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에서 19,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세기를 의상의 테마로 삼고 있다¹²⁾.

본 연구는 레트로 패션이 패션의 한 장르로 완전히 등장하게 된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레트로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에는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이성적 합리주의, 모더니즘과 현대화에 비판과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높은 인플레이션, 실직을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간성회복, 자연에의 복귀, 자기이미지 강조, 세계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¹³⁾.

입생로랑이 1976년 페전트룩을 발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레트로의 유행을 초래하였고, 1977년 컬렉션에서 정식으로 명명한 **fp**트로패션이 1940년대를 연상시키는 스타일로 넓은 라펠이 달린 코트와 에스닉 분위기의 프린트와 여유 있는 스타일로 남녀구분 없이 유행하였다¹⁴⁾.

70년대 레트로패션은 세계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40년대 풍의 밀리터리룩이 유행하였으며, 고도성장의 후유증과 회의로 등장한 자연주의열풍에 의해 과거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열망이 남긴 누더기룩으로 표현되었다.

1977년 엘비스 프레슬리의 죽음은 엘비스의 전성기인 1950년대의 노스텔지어에 대한 동요를 초래하여 이러한 노스텔지어의 열풍이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¹⁵⁾.

1970년대 패션의 전반적인 경향은 과거의 향수에 의한 전통적인 형태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으며, 1930년, 1940년의 급속히 변화하는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 1930, 1940년 스타일을 재미있게 패러디한 복고풍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40년대를 연상시키는 클래식 실루엣의 어덜트 엘레강스가 부활하였고, 바지통이 넓어진 팬츠슈트<그림1>, 드레이퍼리, 스모크, 프릴 등의 여성스러운 복고풍 디테일과 파스텔 색상이 재등장하였다¹⁶⁾<그림2>.

1970년대 중반이후 회고조의 흐름을 되살리는 로맨틱경향의 모드가 유행의 주류가 되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의 시대에 시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많은 여성이 무의식중에 여성스러움으로 자신을 재인식하려는 현상에서 생겨난 것



<그림2> 빅토리아스타일의 복고풍 드레스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397)

으로, 영국의 자수와 레이스를 도입한 흰 칼라, 플레이스커트 등이 자주 사용되어졌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양식을 절충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포스트모던(postmodern), 역사주의 주류 속에서 과거의 향수를 현대풍으로 리바이벌시키는 감각으로 표현되어 절충적 스타일로 등장하였다.

이는 포스트모던 형상의 하나로, 단순히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고 모방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재해석을 통하여, 동양적 민속풍과 20-30년대의 아르데코 부활, 50년대의 글래머러스한 모습까지 다양한 복고패션이 나타났다¹⁷⁾.

1980년대의 최고의 특징은 1920년 이후 매 10년에 대한 향수와 그 스타일의 부활을 들 수 있다.

또한 50년대의 X자 실루엣의 이미지가 화려한 금장신구와 베레모, 체인벨트, 굵높은 전위적인 의상이 유행하였으며, 60년대 미니스커트가 부활하였고, 18, 19세기 각 시대복식을 절충한 스타일로 미니스커트와 페티코트 넣은 스커트복식이 혼합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재창조한 스타일이 나타났다.

1980년대 중반 바로크, 로코코적인 장식주의가 나타나 프릴, 레이스리본과 같은 파잉장식이 나타나고, 소재는 금, 은, 동등의 라메와 타피스트리, 브로케이드, 벨벳등의 호화로운 것을 이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환경문제의 대두로 천연소재를 선호하



<그림3> 웅가로, 17세기의 pourpoint이 현대복에 응용된 레트로룩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406)



<그림4> 샤넬, 버슬스타일이 재현된 레트로룩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406)



<그림5> 칼라거펠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인 레트로룩 (1995-6)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409)



<그림6> 구찌, 70년대 디스코에서 영향 받은 패션 (1995-6)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410)



<그림7>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60년대의 Jackie 록(1995-6) (정홍숙 (1998). 서양복식 문화사. 서울:교문사, p.410)

고, 자연의 문양과 자연스러운 선을 강조하는 에콜로지룩이 유행하였고, 한편으로 기존의 패션에 새롭게 추가되어 혼재하여 다양한 경향이 전개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질층, 해체, 은유, 상징의 특징으로 복고경향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1990년대는 새로 올 세기에 대한 불안, 새것에 대한 낯설음, 미국 WTC테러사건, 미국과 중동의 전쟁, 세계경제의 침체의 영향으로, 1990년대 전반부의 패션

은 절제와 구시대로의 복고적 경향과 함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세기말적, 미래적 경향이 공존하였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풍요로운 경제상황이 어깨와 허리의 강조로 표현된 80년대 스타일, 자유를 상징하는 70년대 히피즘, 여성적이고 우아한 50년대 복고풍이 자주 나타났다.

1960년대 스타일이 여러 곳에 동시에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1920년대룩과 1940년대의 단순한 슈트도 새롭게 유행하였다.

또한 1994년 오드리헵번과 케클린케네디 오나시스의 죽음은 그녀들의 전성시대로의 회상을 일으키게 하여 50-60년대 초의 스타일을 유행시키기도 하였으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 인

<표1> 1970년 이후 레트로 패션의 흐름

	배경요인	레트로 패션에 나타난 형태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더니즘과 현대화에 대한 회의 • 높은 인플레이션, 실직율 증가 • 인간성 회복, 자기이미지 강조, 세계평화에 대한 관심 • 고도성장의 후유증과 회의로 자연주의 등장 • 엘비스 프레슬리의 죽음이 엘비스의 전성기인 1950년대의 노스탤지어에 대한 동요를 초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전트룩 • 1940년대풍의 밀리터리룩 • 1940년대의 넓은 라펠이 달린 코트 유행 • 1930,1940년 스타일을 패러디한 복고풍 • 바지통이 넓어진 팬츠슈트, • 드레이퍼리, 스모크, 프릴등 여성스러운 복고풍 디테일과 파스텔 색상 재등장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모던(postmodern), 역사주의의 주류 • 환경문제의 대두 • 바로크, 로코코적인 장식주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0년 이후 매 10년 스타일의 부활 • 동양적 민속풍과 20-30년대의 아르데코부활 • 50년대의 글래머러스, X자 실루엣 • 60년대 미니스커트 부활 • 18, 19세기 각 시대복식을 절충한 미니스커트와 페티코트 넣은 스타일 • 프릴, 레이스리본과 같은 과잉장식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올 세기에 대한 불안, 새것에 대한 낯설음 • 미국WTC테러사건, 미국과 중동의 전쟁, 세계경제 침체 • 1994년 오드리헵번과 배클린케네디 오나시스의 죽음 • 1980년대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동 • 계속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와 허리의 강조로 표현된 80년대 스타일 • 자유를 상징하는 70년대 히피즘, • 여성적이고 우아한 50년대 복고풍 • 1920년대룩과 1940년대의 단순한 슈트 • Hepburn Look, Jackie Look, Monro Look • 에콜로지룩, 에스닉스타일, 네오히피스타일(1960,1970년대), 그린지스타일, 네오클래식스타일등이 복고풍으로 재현 • 레이어링, 복고풍꽃무늬, 패치워크 • 다양한 스타일의 혼합
2000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문제에 대한 반전운동 확산 • 이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 • 전 세계 지구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리터리룩, 히피룩 • 전통복 요소를 이용한 레트로패션

사를 주제로 그 시대적 이미지를 재현하는 방법 (Hepburn Look, Jackie Look, Monro Look)으로도 표현되었다¹⁸⁾.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을 중시하며 정신적 세계에 대한 향수로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자연주의 성향과 복고풍분위기는 에콜로지 룩과 연결되며, 에스닉 스타일, 네오히피 스타일, 그린지 스타일, 네오클래식 스타일등으로 재현되었다.

재현된 네오히피스타일은 1960, 1970년대 당시 스타일의 자유로움 가운데 승화된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보다 현대적인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표현하였고, 그린지는 1980년대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비롯되어 1960년대 히피패션을 부활시킨 것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다양하게 레이어링 시키고, 복고풍꽃무늬, 패치워크를 결합시킨 패턴을 주로 사용하였다. 계속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어떤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는 양상으로 표현하였다.

2000년대에는 70년대의 에스닉 패션에서 영향을 받은 네오히피스타일이 다시 부각되었으며, 수공예적인 터치의 민속풍이 믹스되어 새로운 키치패션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70년대 풍의 히피와 보헤미안스타일은 에스닉, 패전트패션으로 표현되고 낭만성과 노스텔지어가 수공예적 마무리로 표현되었다.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레트로스타일 연구

패션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레트로패션은 역사적인 요소와 지역적인 요소의 예술양식을 재해석하고 변형시켜서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디자이너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¹⁹⁾. 따라서 현대패션에서 다양하게 부각되고 있는 레트로패션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양식적 특성인 시공간적 절충주의에 근거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1. 시간적 요소에 근거한 레트로 패션

현대패션에 표현된 시간적 절충주의적 요소에 근거한 레트로 패션은 다음과 같다.

2001년에는 20년대를 연상시키는 복고적이면서 그래픽적인 감각의 아르누보스타일, 사각형 모양의 변형을 활용한 레트로지오메트릭 현상 등 경제부흥의 전성기로 여겨졌던 20-30년대, 복고적이고 낭만적인 감성의 40-50년이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뒤틀린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또한 50년대 남성복의 소박한 느낌과 완벽한 테일러링의 절제된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어 전통적인 남성감각의 레트로 클래식이 나타났으며, 50년대 남성아이템의 재해석과 변형, 사이즈의 변화를 표현하였고, 50년대 풍의 masculine style 코트가 유행하였다.

2003년에 나타난 레트로 패션은 20, 30, 40년대 지나간 시대의 아름다운 여배우들의 이미지로 풍요로운 컬러감과 오프쿠뛰르의 완벽한 형태를 20년대 풍의 jewel장식, 30년대적인 바이어스컷 드레스, 클래식한 50년대 풍의 슈트가 클래식 엘레강스로 표현하였고, 우아한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면서도 lingerie dress나 주름, 반짝이는 장식,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20년대-40년대의 우아한 스타일이 표현되었다²⁰⁾.

2004년에는 50-60년대에서 영감을 얻은 retro modern, 30년대와 50년대 클래식에서 영향을 받은 강렬한 그래픽 엘레강스가 등장하였으며, 50



<그림8>
D&G, Collection 2004

<그림9>
versace,
Collection 2004



<그림10> 설윤형, Fashion Zio 2005

년대의 복고적인 다양한 지오메트릭 패턴 전개와, 또한 80년대의 풍성한 실루엣, 과장된 형태감과 디테일이 빈티지한 감성으로 재창조되기도 하였다²¹⁾.

D&G는 다양하게 트리밍 된 퍼코트, 20년대의 드롭웨이트 드레스, 60년대의 꾸레쥬 스타일의 코트와 미니드레스, 80년대의 팝아트 스타일등이

쇼킹컬러의 삭스, 몬드리안 스타일의 고고부츠 등에 매치되어, 중고 옷 가게를 연상시키는 핑키하면서도 빈티지한 감성이 느껴지는 스타일을 표현하였다<그림8>.

Versace는 레트로풍의 벨보텀 팬츠로 와이드한 플레이어를 연출하였다<그림9>.

2005년에는 50, 60, 70년대 레트로 리조트룩이 표현되었으며, 50년대 여성적인 느낌의 실루엣이 지속되어 나타나 허리를 강조하고 둥근 라인의 여성적인 곡선이 더욱 부각되기도 하였다²²⁾. 18세기 로코코의 사롱문화에 존재하던 빛과 장식적인 스타일로 표현되는 극적인 엘레강스의 느낌으로 보헤미안 슈크 이미지가 표현되었으며, 클래식하고 엘레강스한 소재로의 회귀가 시도되었고, 오프쿠머르의 럭셔리를 화려한 페미닌 감각의 새틴소재가 믹스되어 럭셔리클래식 분위기를 연출하고, 무릎에서 종아리사이에 오는 길이의 칼라 없는 스타일의 클래식스타일의 울 코트와 트렌치코트가 등장하였다.

50-60년대의 기하학적 패턴과 곡선적인 라인이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고, 미니드레스나 케이프스타일이 재등장하였고, 밝고 명량한 이미지의 그래픽패턴과 소프트하고 편안한 소재를 이용한 캐주얼 데이웨어, 60년대의 귀엽고 짧은 코트와 원피스, 직선적인 실루엣에 기하학적인 형태의 디테일이 사용되었다.

설윤형은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고, 고도의 과학의 발달로 정체

성을 상실해가는 현대인들, 과학의 부작용을 자연주의와 과거로의 회귀에서 치유하고자 50년대의 레이디라이크를 재해석하여 모피와 가죽등 내추럴소재와 따뜻한 느낌의 색채로 과거의 추억을 표현하였다<그림10>.

박항치는 50년대의 캐서린햄번과 60년대의 체인폰다가 보여주었던 ‘레이디라이크’의 정갈한 이미지를 클래식과 캐주얼의 배합으로 재창조하였으며, 실크, 시폰, 실크새틴, 트위드, 울, 저지, 퍼, 코튼벨벳과 캐시미어의 다양한 소재와 슬림한 라인의 안정된 피팅감, 무릎과 미니의 병행, 코사지액센트로 표현하였다<그림11>.



<그림11> 박항치, Fashion Zio 2005



<그림12> 루비나, Fashion Zio 2005

루비나는 30년대에서 영감을 받은 복고적 이미지를 고색창연한 빛깔들의 조화, 즐겁고 달콤했던 과거의 순간들을 표현하였다. 트위드, 니트, 시폰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몸의 실루엣을 강조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여성스런 이미지, 깊게 파인 네크라인과 귀여운 버튼이 조화를 이루고 허리를 강조한 핑크베스트를 통해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그 때 그 시절의 무드를 고조시키며 한창 즐겁고 달콤했던 순간들을 장식했던 디테일과 실루엣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하였다<그림12>.

2006년에는 40, 50년대 로브스타일의 드레스가 등장하였는데 개더를 잡아 볼륨감을 살려준 드레스, 페미닌하면서도 로맨틱한 무드의 top 또는 블라우스, 레이스를 이용한 가장자리장식과 자수가 특징인 레트로 스타일의 블라우스가 등

장하였다.

손정완은 60년대의 글래머러스와 로맨틱한 룩을 모즈룩과 믹스 앤 매치하여 젊고 진보된 모습을 표현하였다. 상체는 여유 있고 하체는 타이트하게 피트 시켜 허리선과 골반라인을 강조한 여성스러운 실루엣으로 복고적인 절개선과 레이스, 트위드, 벨벳, 브로케이드 소재를 사용



<그림13> 손정완, Fashion Zio 2006

<표2> 시간적 요소에 근거한 레트로스타일 특성 분석

<p>디자인 이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대 그래픽 적 감각의 아르누보스타일 • 40-50년대 낭만적인 감성의 클래식/ 댄디한 이미지 • 20, 30, 40년대 여배우 이미지 • 50-60년대에서 영감을 얻은 retro modern • 30, 50년대 클래식으로부터의 강렬한 그래픽 엘레강스 이미지 • 30, 40년대의 엄격한 매니쉬이미지 • 50, 60년대의 페미닌 꾸뛰르이미지 • 40, 50년대 빈티지이미지 • 60년대의 young parisienne 이미지 • 50, 60, 70년대 레트로 리조트 이미지 • 18세기 로코코의 사롱문화의 보헤미안슈크이미지
<p>스타일 및 실루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대적인 바이어스컷 드레스 • 80년대의 풍성한 실루엣, 과장된 형태감 • 50년대 허리를 강조하고 둥근 라인의 여성적인 곡선이 • 로맨틱스타일을 강조한 하이웨이스트 • 60년대의 미래지향적이고 단순한 실루엣 • 60년대 사다리꼴모양의 직선적이고 여유로운 실루엣
<p>색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고적인 컬러풀한 색채
<p>소재 및 패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60년대의 지오메트릭 패턴의 조화, 직선과 곡선의 조화 • 클래식하고 엘레강스한 소재로의 회귀 • 화려한 페미닌 감각의 새틴소재 • 50년대의 복고적인 브라이트컬러 • 다이내믹하고 나이브한 그래픽패턴 • 소프트하고 편안한 소재
<p>디테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대풍의 jewel장식 • 주름, 반짝이는 장식, • 리본타이 벨트 디테일 • 레이스를 이용한 가장자리장식과 자수
<p>아이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년대풍의 masculine style 코트 • 클래식한 50년대풍의 슈트 • lingerie dress • 50년대스타일의 로맨틱한 코트 • 칼라없는 클래식스타일의 울코트와 트렌치코트 • 미니드레스나 케이프스타일 • 60년대 미래지향적 미니드레스, 귀엽고 짧은 코트 • 40, 50년대 로브스타일의 드레스 • 개더를 잡아 볼륨감을 살려준 드레스 • 페미닌하면서도 로맨틱한 무드의 top또는 블라우스

해 60년대 페미닌을 표현하였다<그림13>.

2. 공간적 요소에 근거한 레트로 패션

2000년대의 레트로 패션은 개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등장하였으며 이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과 전 세계 지구촌화는 각국의 전통복 요소를 이용한 레트로 패션으로 표현되었다.

프라다스타일의 미니멀리즘이나 젠패션이 여성스러움을 기본으로 하는 레트로패션을 표현하거나,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던 디자이너들이 글래머러스한 실루엣의 레트로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전통복 요소를 이용한 레트로 패션은 물질성보다 인간의 감정과 정신을 표현하는 원초적인 형상과 장식을 디자인의 원천으로 사용하였고, 수공예 감각의 활용을 통해 전통적인 장인기술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표현하며 핸드터치를 느끼게 하는 수공예적인 소재들이 일상의 특징없는 제품과 결합되어 새롭게 활용되면서 복고풍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강렬한 개성을 지닌 다양한 민속풍을 표현하는 color군, chinese red, mandarin orange등의 자극적인 red orange와 각 지역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old gold, green, Indian teal blue, 새로운 히피터치의 nostalgic-purple, red violet등의 색상과 포크로릭 감성의 소재 코튼보일, 포플린, 코튼다마스쿠 바탕에 장식적인 모티프들이 포크로릭 감성으로 자수나 아플리케로 표현된 소재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린넨, 실크등의 내추럴소재에 나무로 만든 비즈, 에스닉적인 모티프들이 다소 거친 감각으로 넣어 지기도 하였다.

앤틱 실크 패턴에서 연상되는 다양한 포크로릭 모티프의 활용, ikat이나 batik등 전통적인 수공예감각의 모티프를 레트로풍으로 해석하여 오버프린트나 블록프린트를 믹스, 에스닉프린트와 패턴의 다양한 콤비네이션등으로 리바이벌시켜 표현하였다.

투박한 아프리카 공예품이나 사바나에서 온 원시적인 러스틱 터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모던하게 재해석하여, 사막의 모래와 자연에서 영감을 얻거나 털네, 밀밭등에서 연상되는 태양빛을

연상시키는 색상을 사용하고, 멀티패치포켓, 웨이스트벨트 등으로 표현되는 사파리자켓과 셔츠, 가벼운 테크니컬이 결합된 러스틱소재를 사용한 블루종 스타일의 코트에 원시적인 버튼, 비즈, 우드, 엠버나 조개껍질등의 장식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른 나라의 전통양식에 대한 관심을 오리엔탈무드의 브라이트컬러와 수공예감각이 느껴지는 보헤미안, 히피느낌의 나염기법, 자수와 자카드패턴이 활용되거나 정교한 인디안 모티프의 소재, 오리엔탈 무드의 데코레이션이 강조된 자카드나 비즈, 아플리케를 활용한 장식적 소재에 50년대풍을 표현하는 프린트된 패치코트 스커트나 화려한 데코레이션이 강조된 스모크효과, 자수 놓인 포크로릭한 셔츠와 수공예적인 니트 스타일등 네오히피스타일이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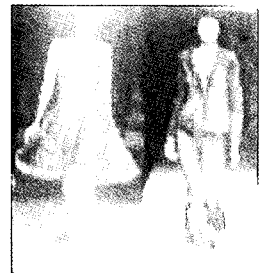
Marni는 매니시한 감성의 크롭트트라우저와 퍼쇼트자켓, 페미닌한 감성의 오비벨트를 매치하며 상반된 감성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빈티지 주얼리장식으로 액센트를 준 원피스, 로맨틱한 리본을 가슴 부분에 장식하 실크블라우스로 레트로감성을 표현하였다<그림14>.



<그림14> marni, Collection 2004

강기옥은 대중적인 소재 데님과 동양적 디테일을 접목시킴으로 오리엔탈 느낌이 물씬 풍기는 데님과 접목한 조형화 작업을 통해, 핸드브러싱 및 워싱기법을 이용한 블루 핑크, 옐로등의 다양한 칼라구성, 슬립한 핏과 여성스러운 이미지 통한 한국전통문화 서양의 꾸뛰르 감각으로 적절히 승화시켜 표현하였다<그림15>.

이영희는 중앙아시아 곳곳에 흩어져있는 소수민족들의 삶의 방식을 전달하는데 의미



<그림15> 강기옥, Fashion Zio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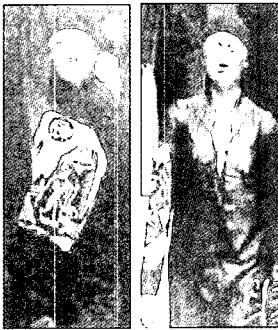


<그림16> 이영희, Fashion Zio 2004

를 부여하기 위해, 블랙컬러에 소수민족의 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색조인 레드, 블루, 그린, 오렌지 등의 컬러의 접목으로 풍성하게 흐르는 듯한 한복의 실루엣과 디테일을 덧붙여 표현하였고 옷고름을 통해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

주는 의미로 승화시켜 동서양의 감성을 적절히 융화시켜 표현하였다<그림16>.

홍은주는 과장되지 않은 슬림한 직선과 자연스러운 드레이핑을 통해 만들어지는 입체적인 비대칭라인은 중국풍 단추등 동양적 감각의 디테일과 접목시켜 나타내었다<그림17>.



<그림17> 홍은주, Fashion Zio 2004

도쿠코마에다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인 오스트리아 티롤과 잘츠부르크를 테마로 그곳을 상징하는 플라워모티브를 자수, 아플르케드의 테크닉을 활용하였다.

자수 놓인 에이프론스타일의 원피스, 레드, 오렌지, 핑크 등의 컬러로 플라

워모티브의 크로세 니트가 볼륨감 있는 레드컬러의 스커트와 매치되어 로맨틱하게 표현되었고, 꾸뛰르감각의 섬세한 니트 조직에 화려한 자수디테일이 글리터리한 스팅클과 비즈등으로 장식되어 골드컬러 스커트와 럭셔리하게 매치되어 표현함으로 오스트리아 전통적인 의상을 연상시키는 포클로어룩을 표현하였다<그림18>.

홍은주는 전통혼례에서 영감을 받은 다채로운 색상들과 앤틱한 분위기의 컬러를 다양한 패치워크와 보색대비를 이용하였고, 동양적 볼륨



<그림18> 도쿠코마에다, Collection 2004

감이 느껴지는 팬츠와 주름이 풍성한 스커트, 불규칙하게 장식된 스와롭스키의 비즈, 저지소재의 사용으로 한복의 유려한 곡선을 느낄 수



<그림19> 홍은주, Fashion Zio 2005



<그림20> 발렌시아가, Collection 2005



<그림21> 알렉산더 맥퀸, Collection 2005

있는 내추럴라인으로 오리엔탈풍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19>.

발렌시아가는 러시아에서 모티브를 얻어 레트로한 감성으로 재해석하였는데, 정교한 테일러링과 금장단추를 비롯한 단추장식, 어깨견장

을 이용한 디테일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그림 20>.

알렉산더맥퀸은 아메리카 인디언지역을 모티브로 민속적 느낌의 수공예적 기법들을 이용한 술장식과 팜팜 디테일, 비비드한 컬러를 사용하

<표3> 공간적 요소에 근거한 레트로스타일 특성 분석

디자인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장인기술에 대한 노스텔지어 • 다른 나라의 전통양식에 대한 관심 • 소수민족들의 삶의 장식 • 아메리카 인디언지역 모티브
스타일 및 실루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추럴라인으로 오리엔탈풍의 이미지를 표현 • 네오히피스타일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렬한 개성을 지닌 다양한 민속풍을 표현하는 color군 • 각 지역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old gold, green, Indian teal blue • 새로운 히피터치의 nostalgic-purple, red violet • 사막의 모래와 자연의 색상 • 릴네, 밀짚등에서 연상되는 태양빛을 연상시키는 색상 • 오리엔탈무드의 브라이트컬러와
소재 및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크로릭 감성의 소재, 코튼보일, 포플린, 코튼다마스크 • 포크로릭한 감성의 장식적인 모티브가 자수나 아플리케로 표현된 소재 • 린넨, 실크등의 내추럴소재 • ikat이나 batik등 전통적인 수공예감각의 모티브 • 수공예감각이 느껴지는 보헤미안, 히피느낌의 나염기법 • 정교한 인디안모티브의 소재 • 오리엔탈 무드의 데코레이션이 강조된 자카드 • 비즈, 아플리케를 활용한 장식적 소재
디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시적인 버튼, 비즈, 우드, 앰버나 조개껍질등의 장식 • 스모크효과, 크로세 니트 • 화려한 자수디테일이 글리터리한 스팅클과 비즈등으로 장식 • 오비벨트, 고름, 단추등 동양적 감각의 디테일 • 빈티지 주얼리장식 • 패치워크, 자수, 아플리케 • 핸드브러싱 및 워싱기법 • 러시아 단추장식, 어깨견장 • 술장식과 팜팜 디테일 • 나무로 만든 비즈
아이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패치포켓, 웨이스트벨트등으로 표현되는 사파리자켓과 셔츠 • 러스틱소재를 사용한 블루중 스타일의 코트 • 자수 놓인 에이프론스타일의 원피스 • 50년대풍을 표현하는 프린트된 패치코트 스커트나 • 동양적 볼륨감이 느껴지는 팬츠와 주름이 풍성한 스커트 • 페루의 이국적인 패전트룩 • 패전트걸 블라우스와 전통적인 코사크코트 • 패치워크를 이용한 포클로릭드레스 • 자수놓인 포클로릭한 셔츠와 수공예적인 니트스타일

여 화려하게 표현하였다<그림21>.

존갈리아노는 페루의 이국적인 페전트룩의 모티브를 활용하고 ‘투명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 누디드한 틀소재는 애플그린, 스카이블루, 바이올렛 컬러 등의 타프트소재와 믹스매치하거나 인체를 베이지컬러의 바디스로 감싸고 화이트, 블랙컬러의 시폰이나 틀로 제작된 재킷과 스커트로 뉴욕을 재해석하였다<그림22>.



<그림22> 존갈리아노, Collection 2006

이와 같이 공간적 절충주의에 근거하여 전통복 요소를 이용한 레트로 패션은 감정, 본능, 자연의 에너지, 원초적 감각을 통해 삶의 균형을 재발견하려는 단순하고 상징적인 가치를 추구함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정신을 표현하는 원초적인 형상과 장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공예 감각의 활용을 통해 전통적인 장인기술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표현하며 수공예직물, 패치워크, 왁스페이퍼등 핸드터치를 느끼게 하는 수공예적인 소재들이 일상의 특징 없는 제품과 결합되어 새롭게 활용되면서 복고풍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레트로패션을 시공간적 절충주의로 구분하여 스타일 특성을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시간적 절충주의적 요소에 근거한 레트로 패션은 경제부흥의 전성기로 여겨졌던 20-30년대에서 영향받아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뎀디한 이미지로, 복고적

이고 낭만적인 감성의 40-50년대에서는 레트로 클래식 이미지로, 대중문화를 보급시킨 50-60년대에서는 retro modern 이미지로, 80년대에서는 풍성한 실루엣과 과장된 형태감의 글래머러스한 룩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그윽한 동경과 센서블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복고적인 브라이트 컬러와 단순한 모티브와 기하학적 그래픽 패턴과 디테일 응용하여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로 회귀를 표현하였으며, 중고 옷 가게를 연상시키는 핑키하면서도 빈티지한 감성이 느껴지는 스타일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고도의 과학의 발달로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현대인들, 과학의 부작용을 따듯한 느낌의 과거의 추억과 즐겁고 낭만적인 그 때 그 시절의 무드를 고조시키며, 한창 즐겁고 달콤했던 순간들을 장식했던 디테일과 실루엣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하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둘째, 2000년대의 공간적 절충주의적 요소에 근거한 레트로 패션은 이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과 전세계 지구촌화는 각국의 전통복 요소를 이용한 레트로 패션으로 표현되었다. 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중동, 남미 복식과 서양복식의 절충으로 나타난 이국취향이 과거와 현재의 절충인 레트로로 표현되었으며, 전통복 요소를 이용한 레트로 패션은 물질성보다 인간의 감정과 정신을 표현하는 원초적인 형상과 장식을 디자인의 원천으로 사용하였다. 수공예 감각의 활용을 통해 전통적인 장인기술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표현하며 핸드터치를 느끼게 하는 수공예적인 소재들이 일상의 특징 없는 제품과 결합되어 새롭게 활용되면서 복고풍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다른 나라의 전통양식에 대한 관심을 오리엔탈 무드의 브라이트컬러와 수공예감각이 느껴지는 보헤미안, 히피느낌의 나염기법, 자수와 자카드패턴이 활용되거나 정교한 인디안 모티브의 소재, 오리엔탈 무드의 데코레이션이 강조된 자카드나 비즈, 아플리케를 활용한 장식적 소재, 강렬한 개성을 지닌 다양한 민속풍을 표현하는 color군, 새로운 히피터치의 색상과 포크로릭 감성의 소재, 포크로릭한 감성으로 자수나 아플리

케, 패치워크, 스모크효과, 원시적인 버튼, 비즈, 우드, 앰버나 조개껍질등의 장식, 나무로 만든 비즈, 에스닉적인 모티브를 현대적 감각으로 모던하게 재해석하여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의미로 승화시키거나 동서양의 감성을 적절히 융화시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 레트로 패션의 이미지는 과거를 회상시켜 주고 자연친화적이며 마음의 따스함에서 여유와 안정감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향수를 느끼게 하는 복고풍, 향수와 포근하고 정감 있는 감성을 자아내는 복고적인 디자인 요소의 활용을 통해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의 감성이 느껴지는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기제화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과거의 스타일이나 디자인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이 아닌, 추억과 회상, 자연에의 희귀와 과거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동경하는 표현의 한 방법으로, 레트로 패션은 과거의 것의 요소들을 현재의 사회와 문화에 어울리도록 재구축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무한한 창조의 소재를 제공하는 출처로써 자유롭고 새로운 창조적 표현을 시도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단순한 과거 문화 양식의 재현의 차원이 아닌 현대적인 것과 과거의 것의 요소들의 절충과 융합의 형태로 레트로의 배경이 되고 있는 퓨전 현상과 접목한 연구, 레트로 디자인 개발 및 현장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1) Hutchen, L., 김상구 역 (1988). *패러디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p.53.
- 2) 천지영 (1999).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17-18.
- 3) Lucie-Smith, E. (1984). *Dictionary of Art Terms*. London. Thames and Hudson, p.141.
- 4) 박혜원, 이미숙 (2002). 레트로 패션의 특성과 문화산업적 의미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 pp.171-187.
- 5) Ibid.
- 6)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397.
- 7) 김미진 (1999). 복고적 이미지를 표현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18-25.
- 8) 조규화 (1995).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p.104.
- 9) 조규화 (1988).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49.
- 10) Naron.com 2002.
- 11) 장희숙 (1996). 현대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 12) 박명희 (1992). 1980년대 패션잡지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보고* 15, p.151.
- 13) 유순경 (1997).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현상에 관한 연구: 1970년대 스타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6.
- 14) 이주영 (2003). 마크제이콥스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레트로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16-20.
- 15) 베비스 힐리어 (1994). *20세기 양식*. 서울: 수학사, p.259.
- 16) 천지영 (1999). Op. cit., p.41.
- 17) 유순경 (1997). Op. cit., p.13.
- 18) 안광숙 (2001). 복식에 표현된 복고경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pp.23-29.
- 19) 정미진 (2005). 꽃문양을 활용한 레트로 테크놀러지 패션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p.29-43.
- 20) www.samsungdesignnet.com
- 21) www.ifp.co.kr
- 22) www.samsungdesignnet.com